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St. Leo Catholic Church, 221Hanford St. Columbus, OH 43206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소식

### ◆ 설 합동 위령미사 안내

- 일시: 2/14 (일) 교중미사 중
-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명절인 설입니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한 연미사를 가정별로 봉헌 하시기 바랍니다.

### ◆ 재의 수요일 예식 안내

- 일시: 2/17 (수) 저녁 7시 30분
- 장소: St. Leo 성당
-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예식이 올해 부터 정상적인 날짜에 거행됩니다. 많은 신자분 들께서는 잊지마시고 꼭 예식에 참여하셔서, 머리에 재를 엮는 예식을 통해 사순시기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당 주보 광고주 모집

-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본당 주보 개편을 위해 주 보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 재정 위원회

### ◆ 대건회 월례모임 안내

- 일시: 2/14(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St. Leo Church 사제관
- 문의: 박종연 미카엘 (614-596-5677)

### ◆ 예비자 입교 예식 안내

- 일시: 2/14 (일) 교중 미사 중
- 장소: St. Leo Church

### ◆ 예비자 교리 안내

- 일시: 2/13 (토) 오후 3시부터
- 장소: 사제관 (St. Leo Church 내)
- 신청문의: 예비자 교리 신청서를 김정일 그레 고리오(614-496-3149) 형제님에게 받으셔서, 작성 후 사무담당인 이호근 라파엘 형제님께 (614-975-773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성모회에서 한국 비디오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2009년 BAA(Bishops' Annual Appeal) 안내

- 올해 우리 공동체 목표 금액은 \$5,700 이며, 지난해까지 모금액은 \$5,180 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참여하실 분은재우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보문의: 김성하 가브리엘 (sunghakim7@gmail.com)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06.25
교 무 금	\$990.00
주보 광고비	\$400.00

- ◆ 교무금: 여정희, 양희진, 김성애, 최규선, 김태형, 김명호, 박귀영, 김도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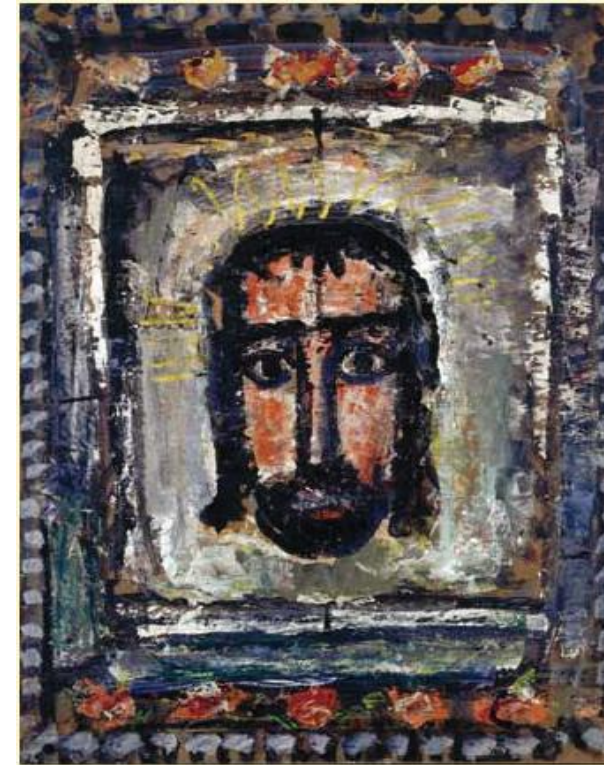
- ◆ 주보광고비: 이승복 스테파노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6주일 February 14, 2010



<그리스도의 얼굴(성안)> 조르즈 루오, 종이에 유채, 퐁피두 센터, 파리, 프랑스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민수기 6,22-27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답송**



주 하느님 - 의 어 지 심 - 을 제 희 위 에 내 리 소 서

**제 2 독서** 야고보서 4,13-15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나날이 주님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복음** 루카 12,35-40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923단 34명
이호영	275단 3명	30,532단 228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75단 3명	222,04-0207/10 (309주)

♣ 총누계: 225,532단 12,863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2/14/10	2/17/10	2/21/10	2/28/10
<b>해설자</b>	김오경	안유신	박귀영	고상식
<b>독서/봉헌</b>	황석두 구역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b>보편지향 기도</b>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증거자의 모후	하늘의 셋별

### 오늘의 성가

♫ **입당:** 57      ♫ **봉헌:** 218  
 ♫ **성체:** 167, 166      ♫ **파견:** 68

## 설의 의미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 신수동 성당 주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어린 시절 이맘때 아이들은 추워도 동네 어귀 방앗간에 모이곤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았으면 좋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사람의 살아있는 따뜻한 인심(人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산가족입니다. 명절이라도 서로 얼굴조차 보기 힘듭니다. 몇십만대의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갔다고 자랑하고, 비행기 좌석과 유명 관광지 숙박업소의 예약이 다 찼다고 자랑(?)합니다. 다른 한편 노부모 벌 면목 없다며 외톨이로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 해체된 가정의 명예를 짊어진 사람들, 일이 바빠 찾아볼지 못한다고 둘러대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감당할수 없는 생활고에 쓰러질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남들 다 고향을 찾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소외된 이웃이 있다며 그럴듯하게 감성을 자극하는 뉴스는 단골메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은 날이 빨리 끝났으면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고, 그 대신 악육강식의 수심(獸心)이 맹위를 떨친 탓입니다. 1독서는 하느님과 인간이 축복과 은혜와 평화의 관계를 맺었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복과 은혜와 평화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돈을 찬미합니다.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는 허리띠를 풀고 등불을 꺼놓고 돈을 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돈으로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루카 12,45 참조). 그리고 여전히 “어느 어느 고을에 가서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며 각오를 다집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을 ‘경제발전(성장)’이라 그럴듯하게 부릅니다.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경제와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경제란 것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이며, 사회의 여러 분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하느님의 복과 은혜와 평화가 스며 있는 인심(人心)을 버리면 사생결단과 무한경쟁의 수심(獸心)이 위세를 떨칠수밖에 없습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 부를 만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며,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인심을 잃고 수심을 얻은 것은 아닌지요.

## 안 내

### ◆ 본당 사무담당 업무 안내

- 담당자: 이호근(파라벨), 김태형(T.아퀴나스)
- 업무시간: 미사 후 부터 친교시간 동안
- 장소: 친교실, 재정 담당자 옆자리
- 업무내용: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세례, 견진) / 각종 신청서 배부(유아, 견진, 혼인성사) / 판공성사표 배부(성탄, 부활) / 전입 및 전출 교적 접수 및 신청 / 본당 신부 면담 신청자료 배부(새로 오시는 신자분들) / 기타 사무업무
- 새로 오시는 신자분들(체류기간 1년 이상)은 교적을 꼭 본당 사무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구역을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새로 오시는 학생분들도 꼭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신심단체에 가입하셔서, 힘든 유학생들이지만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합시다.

### ◆ 본당 신심단체 안내

	단 장	연락처
<b>상지의 옥좌</b>	안유신 레오	614-203-5046
<b>증거자의 모후</b>	이수정 베로니카	850-212-4548
<b>바다의 별</b>	김미영 타티아나	614-288-0907
<b>하늘의 셋별</b>	양희진 에밀리아	614-565-8430
<b>로사리움 샤로네 성가대</b>	윤혜경 엘리사벳	614-361-6018

### ◆ 2010년 매일미사책 정기구독 신청안내

- 1년 구독료: \$40
- 신청방법: 김상욱 안토니오 형제님께 문의
- 전화번호: 614-218-1702

### ◆ 청년 협의회 안내

- 회장: 박필성(바오로)
- 부회장: 양희진(에밀리아)
- 윤정환(스테파노)
- 총무: 이슬보라(엘리사벳)
- 서기: 김환 (스테파노)